# "모성보다 한 여자의 성장기예요"

## 채시라, 종영 '이별이 떠났다'에서 서영희 연기
## 23살 차 조보아와 호흡…3년만에 안방극장 복귀

"개인적으로는 모성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여자'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MBC TV 주말극 '이별이 떠났다'에서 서영희로 열연한 배우 채시라(50)는 이번 작품을 '한 여자의 성장기'로 정의했다.

7일 서울 청담동 한 카페에서 만난 채시라는 드라마가 종영한 데 대해 "24부도 짧게 느껴지는데 20부는 더 빨리 지나갔다. 그런데 그 안에 밀집된 연기의 농도는 짙었기에 시원섭섭하다"고 말했다.

"처음에 캐릭터 느낌을 잡기 위해 소재원 작가님의 원작, 웹소설을 좀 읽었어요. 그런데 대본을 날 것처럼 표현하고 싶어서 끝까지 읽지는 않았어요. 반복적으로 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싫었거든요. 작품을 마친 시점에서 느끼는 건 '여자 대 여자'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영희도 요즘 시대에 필요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시대마다 여성상이 다르고 엄마도 조금씩 변하는데, 그런 면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요."

채시라는 남편의 불륜 후 '살기 위해' 자신을 3년간 집에 가뒀다가 정효(조보아 분)를 만나면서 조금씩 변화한 영희의 내면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묘사했다.

채시라는 "처음에는 영희를 이해 못 할 사람도 있겠다 생각했다"면서도 "약자가 돼버린 영희가 누구보다 강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자신보다 약한 효를 만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 보호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과정이 자연스럽게 와 닿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희가 3년간 갇혀 살다가 효를 만나면서 사람 간 주고받는 감정을 느껴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후에 한 번 더 자신을 가뒀을 때는 길게 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봤자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며 "누구도 나를 꺼내주지 않으니 스스로 나가서 사람에게 다가가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물세 살 차이 조보아와의 호흡에 대해서는 "호흡은 많이 맞춰보면 맞춰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먼저 보아에게 제안을 많이 했고, 보아가 그걸 진심으로 좋아해 줘서 장면마다 완성도도 높아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별이 떠났다'는 '착하지 않은 여자들' 이후 채시라가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작품이었다.

그는 "긴장은 웬만하면 안 하려 한다. 모든 게 힘을 빼야 잘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영희는 모든 감정을 가진 캐릭터라 더 그랬다"며 "이번에 슬립도 입어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그동안 보여드리지 않은 모습도 많이 보여드렸다. 정웅인 씨가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 웃었다.

그는 그러면서 "'힐링 드라마'로 기억되길 바랐는데 그 부분은 좀 이루지 않았나 싶다"며 "남편(김태욱)이 괜찮네'(괜찮네) 하면 아주 좋은 건데 이번에 그랬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제게 남은 과제라 하면 영화가 아닐까 싶다"며 "'화양연화' 같은 시대극도, 우리 것을 잘 표현하는 사극도 멋있을 것 같다. 영화에서 저를 보고 싶다고 해주시는 분도 많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오역 논란 '어벤져스3' 자막 수정 VOD 출시

## 해석 여지 있는 7군데 팬들 의견 반영 교체

지난 4월 국내 개봉 당시 오역 논란을 일으킨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이하 어벤져스3) 자막이 VOD(Video On Demand · 주문형 비디오)와 항공사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팬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됐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홍보사 측은 7일 "디즈니가 VOD 출시에 맞춰 내부적으로 논의해 해석의 여지가 있는 일곱 군데 자막을 팬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했다"고 밝혔다.

영화 말미에서 '실드'의 수장 닉 퓨리가 "Mother Fxxx"이라고 욕설한 부분을 '어머니'라고 번역해 웃음을 산 부분은 '이런'으로 수정됐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이언맨에게 "We are in the end game now"라고 한 대목은 '이젠 가망이 없어'에서 '이제 최종 단계야'로 수정했고, 캡틴 아메리카의 "We don't trade lives"는 '친구를 버릴 수 없다'에서 '모든 생명은 소중해'로 고쳤다.

또 스파이더맨이 아이언맨에게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알고 있었다'로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다.

토르가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멤버에게 아스가르드인이 타노스에게 살해당한 것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아스가르드인 절반이 살아남았음을 암시하는 대사가 추가됐다.

타노스의 학살을 설명하는 대목도 '무작위로 부자든 가난하든 공평하게 죽였다'는 설명이 추가됐다.

호크아이와 앤트맨의 행방에 대해 기존 자막은 소코비아 협정에 서명하고 은퇴했다고 처리했는데 수정본은 가택 연금 중이라는 내용이 덧붙여졌다.

'어벤져스3'의 VOD는 지난달 31일 출시됐으며, 타이탄 행성 전투와 와칸다 전투의 부가 영상과 감독 코멘터리를 비롯해 극장에서는 볼 수 없던 비하인드 컷과 삭제된 편집 영상 등이 담겼다.

## 가수 이미자, 10년간 44억원 소득 신고 누락

2016년 탈세 논란에 휘말려 세무조사를 받은 가수 이미자씨가 10년간 44억원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된 19억원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매니저 권모씨(사망)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다.

매니저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이런 방법으로 탈루한 수입금액은 총 44억 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씨에게 19억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씨는 이 가운데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7,000여만원은 5년의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1∼2014년의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중 1억4,000여만원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취소해 달라고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미자씨와 남편은 "매니저 권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연기획사들도 이씨의 요구에 따라 출연료를 나눠 지급했는데, 이는 거래처에 허위증빙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소떡소떡·김부각…재평가되는 스타들의 주전부리

## 이영자·화사 등 관찰 예능서 인기…'완판' 행렬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알감자 부럽지 않은 게 바로 소떡소떡. 최근 먹방(먹는 방송)계 절대 고수로 불리는 개그우먼 이영자 덕분이다.

이 밖에도 어르신들의 간식으로만 여겨졌던 김부각, 안주로 주로 많이 먹는 박대 등이 걸그룹 마마무 화사의 활약으로 재평가(?)됐다.

이렇듯 스타들이 관찰 예능에서 자연스럽게, 동시에 맛깔나게 소개하는 자신만의 주전부리가 시청자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으면서 간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

방송 전까지만 해도 이름조차 생소한 소떡소떡은 작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 소시지와 가래떡을 꼬치에 교차로 꽂아놓은 형태의 간식이다.

짭조름한 소시지 맛이 강할 듯하나 의외로 소떡소떡의 하이라이트는 떡이다. 겉은 바삭한데 속은 쫄깃하고 탱탱하니 줄 서서 기다릴 때는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일단 한 입 맛보고 나면 화가 풀리는 맛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알려지지 않으면 진가를 발휘하기 어려운 법.

즐겨먹는 주전부리 '소떡소떡'을 방송에서 소개하는 이영자.

'먹방 여신' 이영자가 특유의 기막힌 감탄사와 함께 누가 봐도 먹고 싶도록 맛있게 먹어줬기 때문에 지금의 소떡소떡도 탄생할 수 있었다.

그가 MBC TV '전지적 참견시점'에서 소개한 후 매출이 7배가량 급증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감사 전화를 받았을 정도라고 하니 이영자의 힘은 역시 대단하다.

그러나 최근 이영자를 위협하는 신흥 먹방 강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화사다. 약 2개월 동안 곱창부터 간장게장, 김부각, 박대, 한치까지 먹는 것마다 모두 '완판'이다.

시작은 곱창이었다. 지난 6월 MBC TV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화사는 대낮에 집 근처 곱창집을 혼자 찾아 곱창 2인분에 전골까지 시켰다. 그는 뜨거운 곱창을 빨리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소스에 담가두고, 볶음밥까지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 누룽지로 만들어 먹는 등 남다른 먹방 기술을 선보였다.

방송 후 전국 곱창집 앞에 손님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화사는 곱창협회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았다.

이후에도 그가 먹은 간장게장, 김부각, 박대가 품절사태를 일으켰다.

남다른 먹방을 보여준 덕분에 그는 최근 샌드위치 브랜드 서브웨이 광고 모델이 되기도 했다.

화사 측 관계자는 "화사 본인은 늘 먹던 대로 먹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인데 사랑받아 감사하고 또 놀랍다는 반응이다. 아무래도 대중이 무대 위와 달리 자연스러운 일상을 좋게 봐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마마무의 이번 음반 활동이 최근 끝나고 이제 콘서트를 준비해야 해 이제 '아이돌룸'과 '냉장고를 부탁해' 등 미리 녹화해둔 예능만 남았다. 추후 화사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보실 기회가 많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데뷔 1주년 워너원
# "한결같은 사랑 감사합니다"

7일 한 포털사이트에 '워너원 사랑해'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이날 데뷔 1주년을 맞은 워너원을 축하하는 팬들의 선물이었다.

화답하듯 워너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카페에서 팬 365명에게 음료를 선물하는 깜짝 이벤트를 열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탄생한 워너원은 등장과 함께 지난 1년간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이들은 지난해 8월 7일, 2만석 규모의 고척스카이돔에서 정식 데뷔 무대를 펼치며 '괴물 신인'의 탄생을 알렸다.

2017년 가온차트 연간결산에서 앨범 두 장 판매량은 135만5,618장을 기록했다. 또 올해 가온차트 상반기 결산에서는 방탄소년단에 이어 두 장 앨범을 2·3위에 올려놓으며 총 판매량 146만3,096장을 기록한 대형 그룹으로 성장했다.

멤버들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잇달아 전했다.

이대휘는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워너블을 보면서 느낀 게, 가족도 이렇게 사랑하기 쉽지 않은데 조건 없이 저희를 바라봐 주시는 여러분이 있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김재환도 "워너원이 벅차고 행복한 1년을 보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남은 앨범 후회 없이 팬들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노력할게요"라고 전했다.